

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에 임하는 자세를 배운 것 같다.

내가 작업한 페이지에 팀원이 헤더와 푸터를 삽입하니 레이아웃이 깨져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. 알고 보니 내가 css 작업할 때 body와 a태그 같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선택자를 사용해서 그게 팀원이 만든 헤더에도 적용되는 바람에 디자인이 꼬인 거였다. 내가 만든 코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. 완성된 페이지 하나보다,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과 해결의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남겼다.